

“승객들 안전 책임지는 최고 승무원 될 것”

논문 표절 광주교육대 총장 시민단체 “임명 취소” 촉구



대학생 장한나씨

“학창시절 연기자들 꿈꾸며 자세와 표 준어를 배웠던 것이 승무원을 꿈꾸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부모님을 위해 최고의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꿈인 호남대 3학년 장한나씨(21·여)는

‘맞춤형 교육’ 찾아 마산서 광주로 진학
“고교 시절 배운 연기수업 많은 도움 돼”

모교의 얼굴인 홍보대사를 맡을 만큼 호남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장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홍보대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올해로 2년째 호남대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를 알리고 있다.

장씨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고향인 마산을 떠나 광주까지 왔다. 그는 호남대에 진학한 이유가 ‘맞춤형 교육’이라고 답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는 맞춤형 교육 대학을 찾고 있던 중 마침내 호남대에 진학하게 됐다.

장씨는 어렸을 때 연기자가 꿈 이었

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고향인 마산에서 연기 학원이 있는 부산까지 다닐 정도로 연기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그러던 중 고3 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된 장씨는 승무원을 장래희망으로 정했다. 마산에서 광주까지 유학 온 장씨는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해 승무원을 꿈꾸고 있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싶었던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째 호남대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19 FINA 광주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시상 요원을 맡아 최선을 다했다.



장씨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 수영대회에서 시상요원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며 “야외에서 하루종일 펼쳐지는 오픈워터 시상을 할 때 비바람이 불때

면 힘든 적도 있었지만 좋은 추억이 됐다”고 회상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장씨는 “멀리서 보는 승무원과 가까이서 보는 직업으로써 승무원은 많이 달랐다”면서 “승무원 체험 교육을 갔을 때 항상 예쁜 모습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과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기 지망생으로 1년간 배운 자세와 표준어가 승무원 교육을 받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연기자부터 승무원의 꿈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지원해주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제자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육대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교육부는 제자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광주교대 제7대 총장으로 임명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이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 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 표절, 대립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 총장 해임을 통해 연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경제침략’ 수출규제 철회하라”

5개 구청장협의회 성명

광주시 구청장협의회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추가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자유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결정으로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보이콧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태풍 복상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6일 오전 문인 북구청장이 태풍 프란시스코의 복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보건환경연구원, 유행성결막염 주의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행성 눈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당부했다.

6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시역 안과병원의 협조를 받아 5월부터 바이러스성 안과질환 병원체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유발하는 엔데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행성각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검출률은 지난 5월 35.3%

(17건 중 6건), 6월 54.5%(22건 중 12건), 7월 53.3%(15건 중 8건)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되면 눈곱, 충혈과 함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눈부심과 눈꺼풀이 붓는 증상을 보이며, 염증막이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과 수건, 침구, 세면기구 등 개인용품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수영장 물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황애란 기자

영산강환경청, 광양만권 산단 특별점검

8개 업체 환경오염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만권 산업단지 입주업체 8곳에서 10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구나 기계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방지한 경우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식과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건씩 적발됐다.

또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

하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영산강청은 과태료 부과,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사법 조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영산강청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클럽 붕괴’ 조례 전면 재검토 서구의회 사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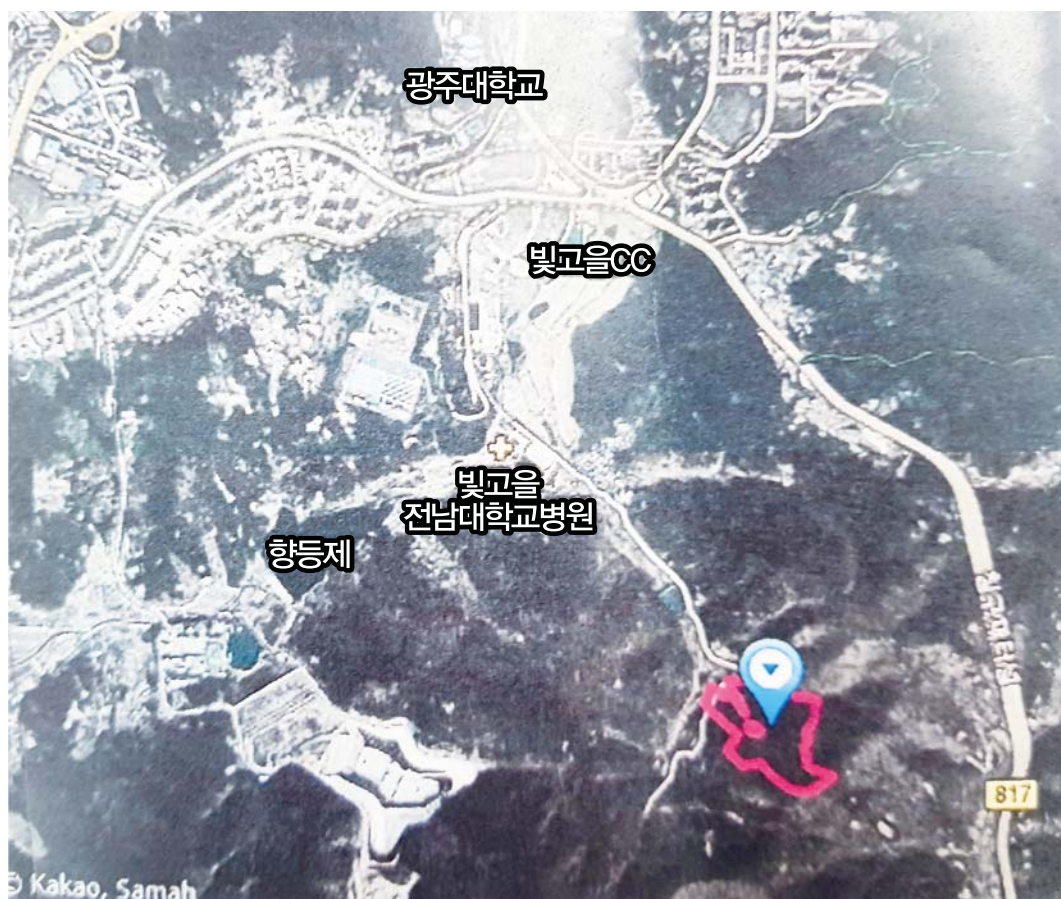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구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서구의회는 6일 사과문을 통해 “클럽의 변칙적인 운영이 가져온 참사에 진심으로 그 아픔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 등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를 통해 구성하기로 한 특위에서는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된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지도·감독 등의 소출한 부분에 대해 점검한다. 특위 구성 인원과 운영 기간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오는 9일 오전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며,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